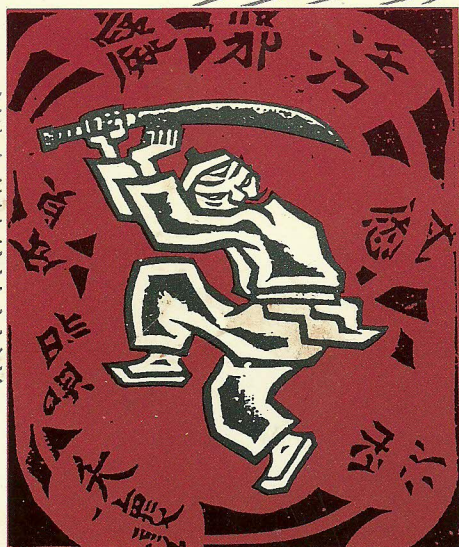


동학 백주년, 마당극 20년, 한두레 20년 기념공연

# 칼노래 김춤

(劍訣 검걸)



오 윤 <칼노래>

총연출 채희완

10월 22일 부산 KBS홀

10월 29일 공주 우금터

10월 30일-11월 9일 서울 문예회관 소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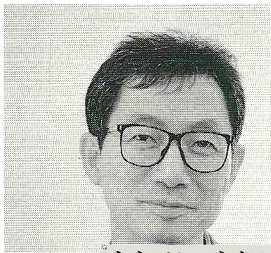
11월 12일 광주 YMCA강당

11월 19일 마산 MBC

그외 청주, 대구, 대전, 목포 등 전국 주요도시 순회공연 예정

주최 : 마당극 20년 기념사업단(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 주관 : 놀이패 한두레 후원 :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문예진흥원

# 연출의 방향 모색



동학농민혁명을 살펴보고 나아가 헤아려 보는 역사를 '산체로 뒤쫓아 깨쳐보려는 큰 눈', 그

채 희 완 (부산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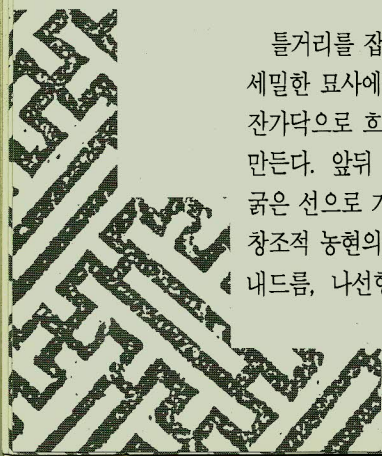
이번 작품의 '경략'구조는 무엇인가.

동학농민혁명을 살펴보고 나아가 헤아려 보는 역사를 '산체로 뒤쫓아 깨쳐보려는 큰 눈', 거대한 기운을 우리는 두가지 진영으로 본다. 그 하나는 역사 전면에 우뚝 서 정치일선에서 현실투쟁적 건도의 길을 간 전봉준 녹두장군과 그의 휘하전투에 직접 참가한 장두 및 농민군들이다. 또 하나는 역사의 밀면에 자리잡아 본원적인 세계에서 기본 세력을 조직적으 감싸안은 여성적 건도의 길을 간 해월 최시형 선사와 비전투요원으로서의 아낙네들과 부상자들과 곰배팔이 병신군상들이다.

앞의 전투요원은 말할 것도 없고 후방의 사람들도 결국은 참전용사다. 그러므로 녹두장군 노선과 해월 선사의 노선의 차별성은 인정하되, 이들의 노선을 남점, 북점의 내부 접전이라거나,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급진, 보수 등의 대립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요체이다. 서로 유기적이고 협동적인, 한 생명체로서 나눌 수 없는, 나누면 각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원순 관계의 '중심적 자아 수렴의 자기 확산 활동' 두갈래이자 또한 한줄기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들의 분담과 병진은 결국 역사 속에서나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세계 속에서 늘 그렇게 활동해왔고, 또 드러나 왔다고 본다. 어찌 병산의 일각을 떠맡치고 있는 크기를 알 수 없는 물밑 덩어리아말로 역사 진보의 견인차 노릇을 맡없이 수행해 온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므로 작품 곳곳에 보일듯 말듯 작품을 끌어가는 아낙네들, 병신잡것들, 부상자들, 죽은 자들의 제 뒹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리고 비전투요원이었던, 그러나 고부봉기의 기폭제 역할을 떠맡았던, 당대 풍물패의 뜨거운 피흐름을 온 몸으로 담아내야 할 책무가 문화패에 던져져 있다.

틀거리를 잡아 작품을 구성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한다. 역사적 사건의 세밀한 묘사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중핵적인 흐름을 큰 중심줄기로 잡아내고 이를 몇 가지 잔가닥으로 흐트러 풀어내면서 마디마디마다 유기적 연관관계로서 살아 있는 나무등걸을 만든다. 앞뒤 문맥이나 구조의 순차적이고 논리정연한 구성방식에 지나치게 매이지 않는다. 굵은 선으로 가서 매듭을 짓되 앞뒤를 태극선같은 이음새로 연결짓는다. 아니면 틈새를 주어 창조적 농현의 여백을 두든가 한다. 맺고 풀, 차고 이음, 내고 닦, 내지름과 꺾음새, 다스내드름, 나선형 회귀곡선 등은 이 작품에서 구사하는 동력선이다. 이러한 작품의 동력선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남긴 과제가 굴러오고 또한 굴러가는 역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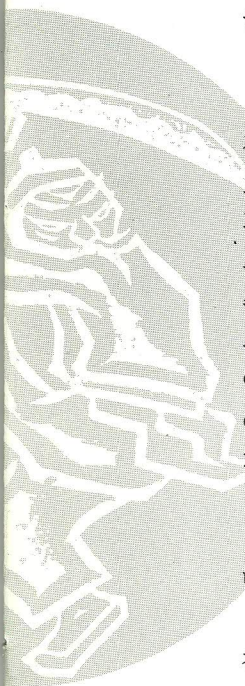
공간방위의 동력선과 부합되도록 지극히 애써 본다.

동학농민혁명이 지나는 한민족사적 동아시아적 세계사적 의의를 감안하고 그 발생의 진원지이자 주도세력의 지역성을 고려해보아 이번 공연의 발생적 토대를 마련한다. 그것은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국적 연계그물을 정서적으로 구축하는 일이다. 곧 호남지역의 뿌리깊은 정한과 타고난 예인기질, 딴 곳에서 흉내낼 수 없는 말춤씨와 소리청, 전라도 개땅쇠 후에로서 구불구불 황토길 같은 배넛몸짓, 이런 전라도 밀바닥의 참한 광대성을 이번 작품의 수원지로 한다. 그리고 이번 공연은 관중을 비롯한 모인 사람 모두가 동학의 생생한 기운을 온몸으로 받도록 하는 역사체험의 마당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2월 고부봉기 역사맛이곳에서 관중의 의식적이고도 능동적인 직접 참여 속에 이루어낸 신명체험의 공동체를 이번 공연의 출연자들이 어떻게 몸으로 다시 받아, 신명의 대행자로서 이를 엮어 풀어낼 것인가가 열쇠가 된다.

열린 공간 마당극판의 원리를 실내 소규모 극장의 닫힌 공간 속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는 기화신명인 집단신명의 현실 적응력 문제와 연관된다.

현장적 운동의 집체성속에 깔려 묻히는 개별신명이 저마다 지닌 자기 실현의 무궁한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움츠러든 개인 감성을 자기 해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는 감정이입의 폐쇄회로를 매개로 하고 있는 감성 독재의 닫힌 구조와 화해하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집단신명을 구성하는 개별신명과 개별신명 사이에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고, 집단 신명을 과대포장하지 않고, 또 과소비하지 않고, 쓸데를 가려 내밀화하여 새세상을 예비하는, 집단신명의 90년대적 개별적 비축이며 소규모화인 것이다. 표현매체로 동원되는 현장생소리와 전자음울림소리, 탈과 분장, 춤과 마임, 운율조와 일상회화조를 비롯하여 정공법과 우회법, 고결함과 비속함, 사실적 표현과 상징, 역사의 현재화와 현재의 역사화, 드라마틱과 스머듬 등 집단신명의 현장운동과 내면적 감정이입 사이,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 사이, 자주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사이에 가로 놓인 이질감, 부조화, 혼용할 수 없는 상호 충돌을 무릅쓰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횡행하는 문화과소비 도시공간 한가운데 마당극이 조그맣게 판을 열어 보인다.

모시고 무고하소서, 모시고 무궁하소서.



## 첫째마당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쓰고 무엇하리



동학 입문의례와 집회양식, 농민전쟁의 상황등을 칼춤, 깃발춤, 북춤등을 통해 총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마당

21자 주문과 칼노래, 구호성 불림 등을 배경으로 전투적이며 신명나는 집단적인 칼춤을 통해 농민전쟁의 시작을 보여준다. 이어서 호쾌한 깃발춤과 북춤으로 농민군의 진격, 작은 승리 그리고 패배를 상징적으로 형상화 한다. 옛 검결의 창조적 재구성 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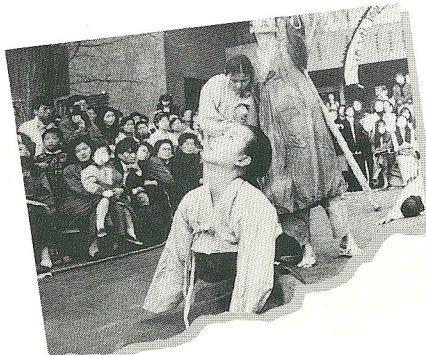
## 둘째마당 우물가의 아낙네들



아들을, 남편을, 마지막 피붙이마저 전쟁터로 보낸 여인네들의 참담한 삶의 정경이 개울가, 우물가에서 펼쳐지는 재담마당

동학의 수많은 이름없는 장두들을 배출한 조그마한 마을에 관군이 들어닥쳐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든 며칠 후. 살아 남은 여인들의 고난, 억척스러운 살림살이, 속 깊이 간직한 비원이 입심 좋은 아낙네들의 육담 속에 배어 나온다.

## 셋째마당 효수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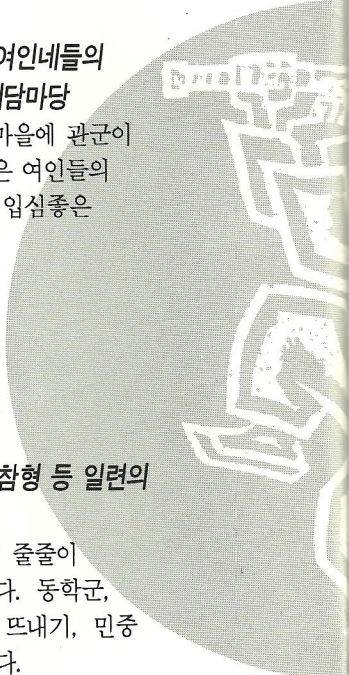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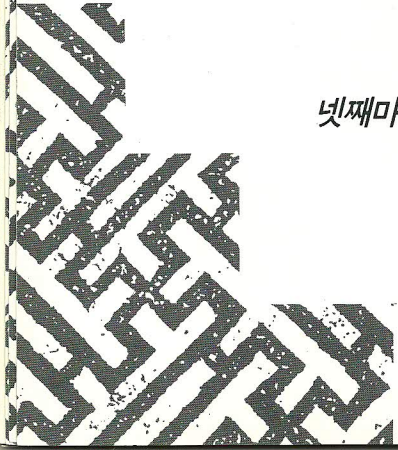


동학 농민군의 기포, 진격, 작은승리, 패퇴, 전사, 참형 등 일련의 참전과정을 엮어 풀어내는 탈춤마당

탈꾼들의 재담 속에 당대 정황이 내비친 후 동학군이 줄줄이 엮어져 나오며 망나니의 춤속에 장두들의 목이 베인다. 동학군, 의병, 민주열사 등이 효수돼 허공에 매달리고 유족, 쓰내기, 민중 등 살아남은 자들의 소리없는 절규가 끝없이 이어진다. 곰배팔이 병신 광대 부부와 아이 버들이 나와 효수당한 자와 살아남은 자에 관한 인생사의 갖은 너스레를 떨며 효수된 탈을 수습하려다 그들도 효수당해 허공에 내걸린다.

## 넷째마당 청수 한 동이

정화수 한그릇 정성들여 모시듯 청수(맑은 물) 한동이 길어 모셔 원혼을 천도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마음다짐하는 판씻음 마당



# 칼노래 칼춤

(劍訣 검결)

시호(時乎) 시호 이내시호  
 만세일지(萬世一之) 장부로서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을  
 무수장삼(舞袖長衫) 펼쳐입고  
 호호망망(浩浩茫茫) 넓은천지  
 칼노래 한곡조를  
 용천검 날랜칼은  
 게으른 무수장삼  
 만고명장 어데있나  
 좋을씨고 좋을씨고

부재래지(不再來之) 시호로다  
 오만년지(五萬年之) 시호로다  
 아니쓰고 무엇하리  
 이칼저칼 넋짓들어  
 일신(一身)으로 비켜서서  
 시호시호 불러내니  
 일월(日月)을 희롱하고  
 우주에 덮여있네  
 장부당전(丈夫當前) 무장사(無壯士)라  
 이내 신명(身命) 좋을씨고

[개벽 후 오만 년 동안 처음 맞는 다시 없는 나의 때가 이르렀으니 한울님을 모시고 지극한 도를 깨친 대장부 영웅이 천하의 명검을 빼어들고 달려나가 생명과 진리의 칼춤을 추노니, 온 천지를 벗어나 홀로 우뚝 서서 해와 달과 온 세상 온 우주를 뒤덮을 듯 웅맹을 떨치는데 세속의 만고 명장인들 당할 자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동학의 창시자이며 천도교 1대 교주인 최제우가 지어 동학교도들이 수련의 한 방식으로 몸을 닦고 주문을 외고는 칼노래를 부르면서 칼춤을 추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때의 노래와 춤이 검결이다.

검가(劍歌), 검무(劍舞), 또는 시검가(侍劍歌) 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검결은 지금은 가사만 남고 노래의 가락과 춤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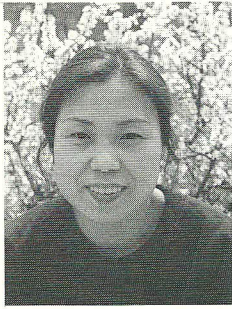
이 칼노래 칼춤은 서양을 음으로 보고 동양을 양으로 보는 동양의 전통적인 음양사상에 따라 당시 오랑캐가 출몰하면 주문과 칼춤으로써 적을 물리치고 나라와 백성을 보존한다(輔國安民)는 것. 이는 유·불·선의 전통과 민간신앙에 반봉건, 반침략 의지를 창조적으로 종합한 노래와 춤으로서 동학사상의 일단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만든 사람

- 기획** 마당극 20년, 한두레 20년 공동기획단  
 임명구, 유인택, 최정완, 정승천, 윤만식, 박명구, 마승락
- 기획요원** 서창수, 한미경, 정수정, 이재운
- 진행** 권대일
- 소품·무대** 김남수(숯대공방 대표)
- 탈재작** 이석금(화가, 동래 들놀이 탈제작 이수자)  
 김정현(화가,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임옥상(화가, 민예총 민족미술협의회 대표)  
 이연수(조각가, 이화여대 강사)
- 안무** 황해순, 남기성
- 음향녹음** 김벌레스튜디오 열썬
- 음악** 최태현(중앙대 교수), 김민기(소극장 학전 대표)
- 판구성** 임진택(연출가), 이상우(연출가), 김석만(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 총연출** 채희완(부산대 교수)

나오는 사람

놀이패 한두레(서울)



이연형 아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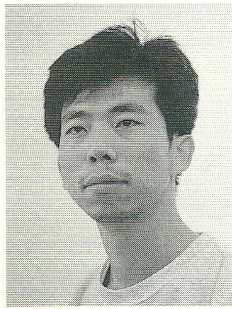
홍성원 아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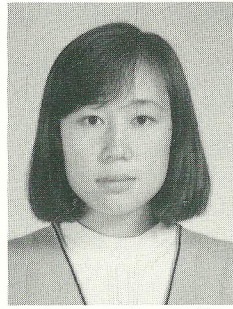
구재연 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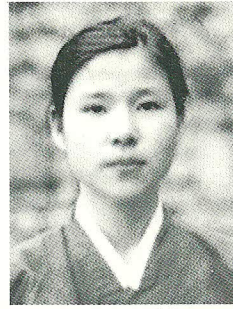
최현숙 아낙, 유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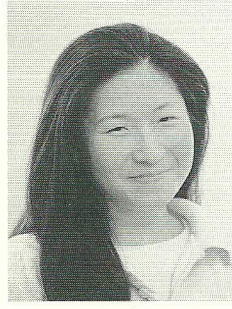
남기성 망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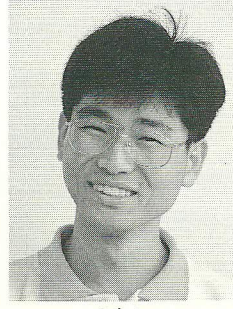
김순희 유족, 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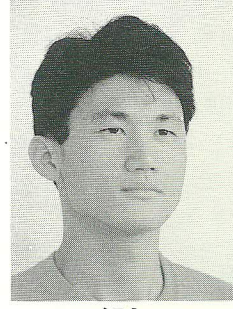
서지현 유족



김옥희 광대, 청수



염귀공 유족, 칼춤



전종출 칼춤, 북춤

극단 현장(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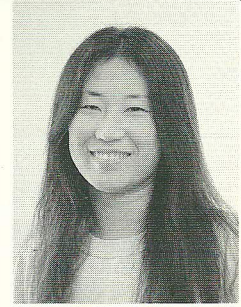
김명화 아낙, 유족

민족극패 울력(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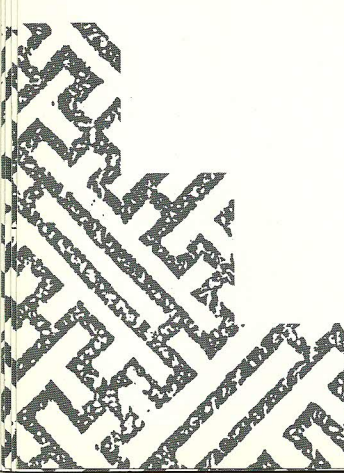


장이환 칼춤, 장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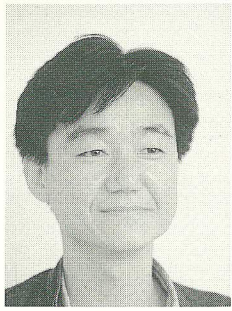
놀이패 신명(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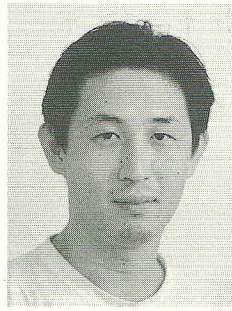
박강의 광대, 청수



극단 자갈치(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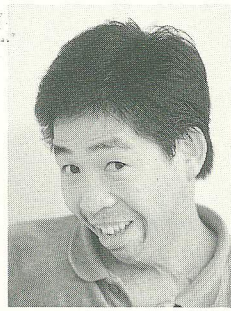


황혜순 깃발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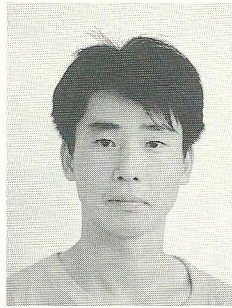
전병복 광대

극단 갯돌(목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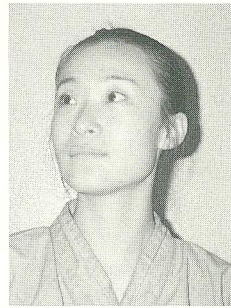
손재오 광대

놀이패 일터(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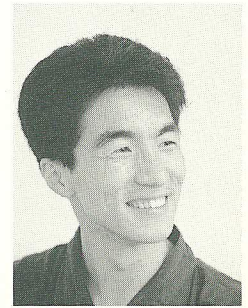


서영수 길춤, 북춤, 장두

춤패 춤누리(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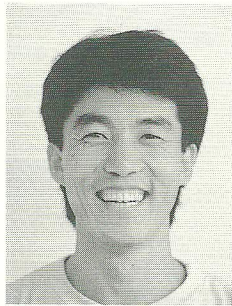


김정경 유족, 청수



이상운 길춤, 장두

민족도장 경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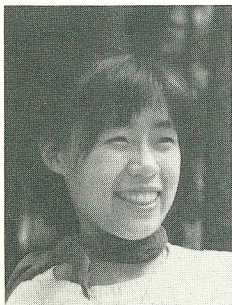


김재성 길춤



풍물 풍물굿패 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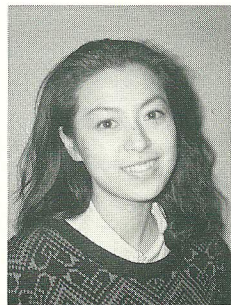
춤



황경선



서연경



송영선

연주 중앙대 한국음악과  
김충환, 김인태, 진성수  
김동운, 황호준

노래 정연도, 김영남  
안계섭, 이정표